



아담과 하와(희귀본)  
Adam and Eve (Unique Version)  
1504년, 19.2×25.2cm, 동판화  
오토슈페르박물관 소장

전시 기간  
2023.12.19. -  
2024.3.31.

Date  
Dec.19.2023. -  
Mar.31.2024.

# 문자와 삽화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를 만나다  
Meet Albrecht Dürer's prints

Text and Illustration

Text and Illustration

그림이 문자를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짧은 메시지가 소통의 대세입니다. 메시지의 글은 짧아졌고, 그 짧아진 만큼을 그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림 없는 글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최되는 박물관 특별전은〈문자와 삽화〉가 주제입니다. 삽화는 글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삽화가 처음 나올 때는 글의 이해를 돕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과 판화의 유행으로 삽화는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발전하였습니다. 독일의 알브레히트 뒤러는 수준 높은 삽화용 판화를 제작한 작가입니다. 전시에서는 뒤러와 같은 훌륭한 삽화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자와 그림의 근본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Invitation to the Exhibition

Images may one day replace the written word. Today, a few lines of text sent via smartphone are the norm for communication. As messages have become shorter and shorter, images have taken over. We can no longer imagine writing without pictures.

The theme of our 2nd special exhibition is “Text and Illustration.” An illustration is a picture drawn to make a text easier to understand. When illustrations first appeared, they were meant to help people better understand a text.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printing and the popularity of printmaking, illustration developed into a unique artistic genre. German artist Albrecht Dürer produced some of the finest illustrative prints. This exhibition showcases the works of great illustrators like Dürer.

We hope this will inspire you to contemplate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writing and pictures.

2023  
12  
19

2024  
03  
31

문의  
032-290-2029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17

Contact  
032-290-2029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217, Central-ro, Yeonsu-gu, Incheon,  
Korea, 2200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NMW  
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 문자를 위한 그림 Painting for Text

1

그림은 글로 전하는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특별한 그림을 삽화라고 부릅니다. 삽화는 글의 내용을 쉽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글의 신성함이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삽화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책에서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삽화는 전문적인 장인들의 손을 통해 아주 세밀하게 그려졌고, 화려하게 채색되었습니다.

한편 인쇄술의 발전으로 삽화는 판화의 형식으로 크게 발전합니다. 대중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던 상업용 서적, 일반 사람들의 계도를 위한 교화용 서적에서 삽화는 특히 유행합니다.

Pictures make the stories we tell in writing come alive. The special drawings created for this purpose are called illustrations. Illustrations not only make it easier to communicate the content of a text, but they also enhance the text's sacredness or credibility.

Illustrations first appeared in religious books, where they were drawn in great detail and lavishly colored by skilled artisans.

With the development of printing, illustration took a major leap forward in the form of prints. Illustrations became especially popular in commercial books, which were intended for mass sale, and in educational books, which were intended to instruct the common people.

1-1

손으로 그린 삽화: 기도서



기도서  
Book of Hours  
(Use of Evreux)  
1450~1460년,  
양피지에 채색  
10.8×16.0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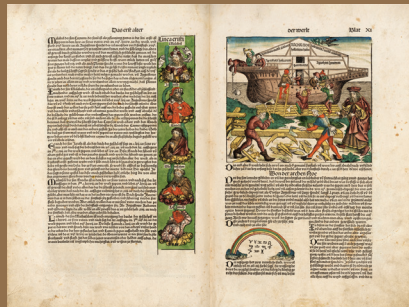
1-2

인쇄술과 삽화

코베르거 성서  
Koberger Bible  
1483년, 종이에 활자·목판 인쇄  
26.0×38.2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



뉘른베르크 연대기(독일어판)  
The Nuremberg Chronicle(in German)  
1493년,  
종이에 활자·목판 인쇄  
34×50.2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



# 그림을 위한 문자 Text for Painting

2

판화로 제작된 삽화는 이제 작품이 되었습니다. 삽화는 글의 내용을 보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의 장르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걸출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알브레히트 뒤러나 조선의 김홍도는 모두 대표적인 삽화가이기도 합니다.

삽화는 문자를 보조하는 역할에서 시작되었고, 언제나 책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하면서부터 삽화는 책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삽화를 곁에 두고 감상하였습니다. 오히려 글은 삽화가 전달하는 그림의 메시지를 보좌하였습니다. 문자와 그림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Once an illustration is produced as a print, it becomes a work of art. Illustration transformed from a method of supplementing a text to becoming a new genre of art, with master painters at its center, such as Albrecht Dürer in Germany and Kim Hong-Do in Korea.

Illustrations began as ever-present supplements to the text in books.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prints by master painters, illustrations came out of books and people started appreciating them as personal keepsakes. Text was employed to supplement the message of the illustrations, and the roles of writing and pictures began to reverse.

2-1

김홍도와 왕실 화원의 판화

바람직한 행실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  
오륜행실도언해 五倫行實圖諺解  
Stories of People Who  
Demonstrated Virtuous  
Behaviors  
1797년, 종이에 활자·목판 인쇄  
19.2×35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



2-2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



요한 계시록(목시록)의 네 기사  
The Four Horsemen  
1497년경, 목판화, 30.5×41.5cm  
오토셰퍼박물관 소장



멜랑콜리아 I  
Melancolia I  
1514년, 동판화, 18.6×24cm  
오토셰퍼박물관 소장